

住居史에 관한 諸學問의 연구성과

Research on Housing History of Multi-Discipline

김 대 년*
Kim, Dae Nyun
박 정 희**
Park, Jeong He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result about housing history of multi-disciplines especially archeology, cultural anthropology, folklore, geography, architecture and dwelling science.

Each discipline has acted an important role to develop the research on housing history, even though they have some limitations. They usually failed in clarifying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housing, habitants and social environme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suggests microsociological approach, so called "Housing Adjustment Model".

I. 서 론

한국의 주거사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대부분 일본인학자 특히 건축역사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한반도내의 지역별 주택의 현황이나 건물의 家構상태에 관한 설명 등 조선시대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온돌이나 마루, 주거의 발생 및 보급 또는 복원 등의 단편적인 사적 고찰이 있었다(김정기, 1989).

해방 이후 주택의 구조형식에 관한 연구를 시작

으로 우리나라 학자에 의한 주거사 연구가 행해졌으나 6.25 동란과 그 혼란기를 거치는 동안 활발하게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도 몇몇 고고학자와 건축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주로 과거의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재검토하면서 얼마간의 새로운 유구에 대한 조사연구를 포함한 通史의 연구활동이 있었을 뿐이었다(김정기, 1989). 이 시기에는 민속학자와 지리학자에 의한 연구가 병행됨으로써 시대상황과 주거문화를 결부시킨 주거사의 가설적 시대구분이 이루어졌으며, 시대별 주거문화의 특성과 일반적인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유승용, 1989).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주거사 연구가 양

* 경희대 가정관리학과 강사

** 경희대 가정관리학과 강사

적, 질적으로 급격히 팽창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로서, 역사적 전통 유산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서 여러 곳에서 진행된 대규모 댐공사로 인한 수몰예정지구에 대한 조사, 건설공사의 진행에 앞서서의 문화적 유산의 조사와, 문화재로서의 전통민가의 지정을 위한 조사가 활발하였다. 이 시기에는 각 학문분야마다 각기 다른 접근방법으로 주거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고고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건축학, 가정학적 접근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거사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문의 분화가 심해져가는데 비해서, 주거사에 관한 연구는 같은 대상을 두고 조금씩 다른 각도로서 각 학문분야의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거나 연구의 방법론적 틀을 이루지는 못하였다(유승용, 1989).

이에 본 연구는 주거사를 다루어왔던 제학문 특히 고고학, 문화인류학, 민속학¹⁾, 지리학, 건축학, 가정학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개괄해 보고, 접근방법에 대한 장점과 한계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지나치게 평면 및 배치형태, 재료, 구조방식등의 건축요소만을 강조하고, 주거를 이용하는 거주인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거형태와 주생활간의 관련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微視社會學的 접근방법(microsociological approach)의 유용함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의 각 학문 분야에서 발간되는 논문집과 학위논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개관해 본 것으로 접근방법은 각 학자들의 소속학과와 논문집의 성격 등을 위주로 하여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각 학문의 독자성을 인정하

기 위한 개념적 편의성에 의거한 것이며, 실제로 주거문제의 연구는 어떤 한 가지 접근방법만을 고수하여 연구되어지지 않고, 다각적 접근방법이 혼합되어 사용된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류한 연구성과들이 각 학문의 접근방법을 대변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연구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II. 제학문 분야의 주거사 연구

1. 고고학 분야

고고학은 인류의 생활 흔적인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문화 발전의 법칙을 규명하고 그 생활상을 복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최몽룡, 1988).

고고학에서의 주거사 연구는 주거지의 발굴 및 주거지에 나타난 유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 시대의 자연환경, 경제유형, 기술개발의 정도 및 사회조직을 추론해내고자 하였다. 건물의 폐기, 철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굴된 주거지에 세워졌던 입체적 주거형태는 모두 소실된 상태이므로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한 고고미술학 계통의 연구 또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의 주거사 연구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자료수집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총독부의 주도 하에서 일본 건축역사가에 의해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한 주택의 현황 및 지역간의 차이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출발되었으며, 구석기 시대의 함경북도 종성군 동광진 유적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이 일체시대였다. 해방 이후 주택의 구조형식에 관한 연구가 우리나라 학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6.25 동란을 거치는 동안 주거사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였다(김정기, 1989).

1960년대에는 지금까지의 문헌고찰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 및 연구를 주축으로 하는 고고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남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구석기 시대의 충청남도 공주군 석장리 유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건축방면의 연구에서도 주거분야에 대한 학문

1)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은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같은 연구자가 때로 민속학자로, 때로 문화인류학자로 구분되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이 둘은 접근방법이나 연구대상에 있어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어 민속학을 문화인류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나, 학문문화의 경향으로 1958년에 문화인류학회가, 1969년에는 민속학회가 독립되어 활동중이므로 이들 학문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따로 기술한다.

적 관심이 높아졌고, 민속학과 지리학 분야의 연구도 병행됨으로써 시대상황과 주거문화를 결부시킨 주거사의 가설적인 시대구분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는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를 많이 발견하고, 실질적인 발굴과 실측조사 연구가 급증하여 수혈주거지 내에서의 주거생활 양상이나 架構의 형식 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수정을 가한 시기였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주거지를 발굴하고 깊이있는 학문적 고찰을 한다면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연구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70년대의 고고학 분야에서의 업적은 국력신장에 따른 농촌의 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등의 근대화 작업과 대규모 댐공사로 인한 수몰지구 및 건설용지로 지정된 지역의 문화적 유산의 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역사적 전통유산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여러 대학에서 고고학 또는 민속학과 관련된 학과들이 신설되었다는 사회적 여건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형성은 80년대에도 계속되어 고고학의 분야인 선사시대의 주거에 관한 연구와 아울러 건축사적,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고고학 분야에 있어서의 주거사 연구는 선사시대(주로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의 발굴 및 조사, 발굴된 주거지에서 발견된 유물과 주거지의 평면

형식에 관한 연구, 고분벽화에 관한 연구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분벽화는 고구려시대의 것으로 주인공의 생전의 생활을 주로 그린 인물풍속도(김기웅, 1982) 또는 묘주생활도(김원룡, 1984)에서 그 당시의 주택구조 및 주거생활양식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고학 분야에 있어서의 주거사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로, 주거지의 평면적 연구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당시 주택의 입체적 형태와 주거공간 내에서의 생활행태에 관한 추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定說이 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둘째,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가 단위 주거지를 발굴조사한 것으로 취락형성이나 주거생활에 있어서의 상호유기적 관계, 계층에 따른 주거규모나 위치 등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주거지의 계속적인 발굴작업이 이루어져 더 많은 자료를 근거로 한 주거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행해진다면 원시주거생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구석기 시대의 주거지연구를 위해서는 지질학, 암석학, 형질인류학등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최몽룡, 1988) 이러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고고학자가 부족하다는 점은 전반적인 고고학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표 1) 고고학 분야의 최근 연구경향 및 성과

시 기	연구 경향	주 거 지 발굴
1960년대	- 주거지 편년을 기원 5-6세기로 추정	- 충남 공주군 석장리(구석기) - 서울 압사동(신석기) - 파주군 교하리(청동기) - 파주군 옥석리(청동기)
1970년대	- 신석기시대 유적지 실측조사 연구 - 국토개발사업에 따른 전국적 조사발굴 사업 - 주거지 편년을 기원전 7-10세기로 추정	- 서울 석촌동(초기철기) - 여주 혼암리(청동기) - 부여군 송국리(청동기) - 장천리(청동기)
1980년대	- 발굴조사작업의 계속기, 발굴지역에 대한 분석적 연구	- 춘천시 증도동(신석기 초기철기) - 수원 서둔동(초기철기) - 가평 마장리(초기철기)

2. 문화인류학 분야

한국의 문화인류학의 역사는 30년 정도로, 1958년에 한국문화인류학회가 창립된 시기로부터 본다. 18세기 실학자들의 저술인 농촌생활이나 민간 습속 또는 농업기술을 다룬 내용이 있어 이를 인류학적 연구로 보려는 경향도 있었으나 연구의 방법이나 내용이 인류학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권이구(1988)는 “Anthropology is what anthropologist has concerned”를 제안하였는 바, 이 정의에 따르면 인류학의 범주에 어떤 것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시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6.25동란 이후 대학의 사회학과에서 인류학 관련강의가 개설되고 인류학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 의해 한국문화인류학회가 창립되었는데 당시의 연구경향은 민속학 위주였다. 7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민족 문화의 발굴 및 올바른 역사상의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류학적인 연구방법이 이용되면서 민족문화와 사회의 의미, 그 측면 및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80년대에는 새로운 이론의 도입으로 전문화, 세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성숙된 문화인류학적 연구활동이 전개되었다(한상복, 1988).

문화인류학에서는 주거를 사회계층이나 집단에 의한 문화적인 산물로 간주하고 주거생활 전반에 나타난 관습이나 생활규범 등은 그 사회의 형태나 조직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에 있어서의 주거사 연구는 국어학, 고고인류학, 문화인류학 등의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김광언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김광언은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현지조사를 통해 옛 살림집을 연구함으로써 이들의 모습을 정리하고, 가옥의 유형을 분류해내고 그것들의 분포지역을 밝혀냈다. 또한 주거는 삶의 실체라는 관점에서 일상적인 생활풍습과 주거공간과의 관계, 주거공간 내에서의 생활 그 자체를 인류학자의 시각으로 관찰하

고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다른 분야 특히 건축학자들이 소홀히 했던 점이다(주남철, 1988). 옛사람들의 주거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집터의 풍수설을 강조하고, 하나의 집이 완성되기 까지 시행되어 왔던 건축의례를 다루고, 성주신, 터신, 조양신, 삼신, 뒷간신 등 주거와 관련된 토속신들에 관해 연구하였다.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각 지방의 사례들을 폭넓게 다루으로써 주거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사회적 규범이란 조상숭배, 남녀유별, 장유유서, 상하계층의식등으로서 이들 규범이 과거의 주거생활에 있어서 또는 주거구조 및 배치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려고 노력하였다.

주거사 연구에 있어서 김광언의 문화인류학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본다.

우선, 오랜 세월동안 연구자가 직접 현지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발굴, 수집했다는 것이다. 주거와 관련된 관습이나 과거의 생활규범들을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생생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있는 자료 발굴작업이며, 그들이 언제까지나 생존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현존하는 옛살림집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파손되어 없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의 연구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주거관습이나 과거 생활규범들을 파악해내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옛살림집의 물리적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그러한 관습 또는 규범이 실제로 어떻게 통용되어 왔고, 실천되어 왔는가를 타당성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주거규모, 형태, 건축방법에 치중하여 주거사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주거가 인간이 사는 생활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나간 듯 했는데 이를 함께 보완해 나간 것이다.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은 개개의 가옥에 대해 세부적 특징을 기술하는 한편, 거주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건립과정이나 주생활의 관습을 분석하는

동 의의있는 방법이지만, 면담에 옹한 거주인과 그들의 주거형태간에 시대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인을 자료제공자로 한 주거형태의 설명은 한계를 지닌다는 점과, 면담의 방법 또한 검증과 반복이 가능한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접근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민속학 분야

민속학이라는 명칭은 영어의 folklore와 같은 말로서 처음에는 土俗學, 또는 俚諺學 등으로도 불렀으나 민속학으로 고정되었다. 프랑스에서 folklore는 문명사회에 있어서의 민간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두개의 문화, 즉 지식계급과 일반계급의 문화를 구별할 수 없는 민족에게서는 민속학적 자료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 문명민족에 있어서의 민간지식과 민간생활에 관한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folklore는 보통 이야기되고, 노래불리어진 傳承 즉 口碑傳承의 뜻으로 사용된다(이두현 등, 1979 : 18).

우리나라 초기 민속학은 최남선, 손진태 등 주로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 구명을 위한 민속의 연구로 시작되었다. 초기 민속학 연구는 문헌자료에 의한 논고나 외국 문헌의 역술에 머물렀으나 송석하는 민속학 연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조사(field work)로서 광범하게 민속자료의 조사, 발굴, 보존에 불멸의 공을 쌓았다(김택규, 1982 : 40, 이두현, 1984 : 7 재인용).

1920년대부터 1960년대에 가장 많이 민속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민요였고, 1970년대부터는 민담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왔다. 1969년에 창간된 한국 민속학誌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 온 분야는 일반민속이었고 그 다음이 설화, 민속놀이, 무용, 무속, 민요의 순이었다(박계홍, 1988).

민속학이란 한 지역 내에 사는 민족이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향유해 오는 생활양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김동욱 외, 1988)으로서 전통적인

주거생활 양식은 민속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민족이라 함은 지배, 귀족계급을 포괄하는 광의의 말이 아니고, 민족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농민과 상공어민, 노예 및 피지배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민족문화라 함은 귀족문화에 대한 일반 민중의 문화를 일컫게 된다. 따라서 민속학은 전통민가에 있어서의 건축의례라든가 주거와 관련된 신앙, 풍속, 생활상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민속학회가 설립된 1970년을 민속학이 학문적으로 독립된 행수로 생각한다면 20년 동안 민속학자들은 주로 일반민속이나 설화, 놀이, 무속, 민요등에 관심을 쏟았을 뿐, 주거사에 관한 연구는 물론, 주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1969년부터 문화공보부 후원으로 한국인류학회가 맡아 실시한 韓國民俗綜合調査는 전국적인 규모로 방대한 민속자료들을 수집하여 기술하는 가운데 민가를 주생활 분야의 핵심주제로 다루었으나 그 집필진 가운데는 건축학자, 민속학자, 인류학자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접근하였기때문에 민속학 고유의 접근방법을 보이지는 못하였다(강영환, 1989 : 32).

85년 이후 한국민속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주거사에 관련된 유일한 연구는 배도식(1985)의 한국의 이사풍속이었다. 그는 한국의 이사풍속을 古代, 三國時代,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이사의 유형과, 이사풍속, 이사풍속의 배경사상에 대하여 논하면서 한국의 이사풍속은 除厄招福의 원초적인 인간의 기본욕구에서 비롯되었고, 이사풍속의 배경사상은 풍수사상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 음양오행사상, 점복 및 기타 민간신앙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민속학에서의 주거사연구는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먼저, 민속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연구된 기간이 짧았다는 점과 戰後 민속학의 정리 초기에 민속학이 국문학계에 의해 중흥되어 그 영역도 문

에민속이나 연극민속 관계 또는 이와 연관되거나 그 모태로 간주된 종교민속, 그 가운데서도 무속의 연구에 그쳤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민

속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은 주거와 관련된 신앙, 풍속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확대 발전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표 2〉 문화인류학 및 민속학 분야의 연구

시 기	연구 경향	주요 연구
1960년대	- 1958년 한국문화인류학회 창립 민속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민족문화의 발굴 - 국어, 국문학, 역사, 국악, 무속, 민간신앙 등 민속에 관한 연구	
1970년대	- 인류학적 제 연구방법을 이용한 민족문화의 발굴 - 1970년 민속학회 학회지 발간 - 전국민속종합조사	-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 한국민속종합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80년대	- 기존의 이론 및 방법의 세련화 - 본격적인 문화인류학적 활동의 전개 - 민속학의 침체	-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 한국의 이사풍속(배도식)

4. 지리학 분야

학문적 전통이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는 지리학에서의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은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관심이 주로 되고 있다.

지리학에서 주거문제는 문화지리학의 관심으로서 실제적인 연구성과는 민가형의 지리적 분포를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도를 이용한 자료를 수집, 분포양상의 지도화 등은 지리학적 접근방법으로서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다. 민가의 문화지리학적 연구는 민가의 유형분류, 지리적 분포 등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민가의 유형분류는 평면형태나 배치형태 등 특정한 건축요소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로서 각 요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미흡하여, 지리적 분포양상으로부터 문화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건축을 사회적 산물로 보기보다는 지역적 산물로 단정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강영환, 1989 : 32).

이영택(1965)은 평면구조에서 본 한국의 가옥분포에서 주로 평면을 지표로 해서 한국의 민가를 관북형, 관서형, 중부형, 남부형으로 분류하고,

각 형별로 형태적 특색과 분포지역을 기술하고 있다.

지리학자로서 본격적인 민가연구를 한 장보웅(1981)은 한국민가의 평면을 지표로 하여 문화지역을 구분하여, 復列형 민가가 분포하는 한반도의 동부와 單列형 민가가 분포하는 서남부로 구분하였다. 복렬형(겹집) 민가는 대들보 아래에 방을 2열로 배치한 것이고, 단렬형(홀집) 민가는 대들보 아래에 방을 1열로 배치한 것이다. 또한 그는 복렬형 민가분포지역의 남쪽인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와 같은 군 원덕면 동활리의 양지방에 側入民家(지붕과 민가의 전면과의 관계에서 지붕의 용마루와 민가의 평면이 평행할 때를 前入民家라 하고 이는 한국에서 보편적인 형태이며, 지붕의 용마루와 민가의 전면이 수직이 될 때를 측입민가라 한다)가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민가연구와 함께 지리학에서는 도시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내부의 거주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하다. 거주지역이 도시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Kirby, D.A. 1983. 강대현, 정승일, 1985 : 17 재

인용). 도시지리학에서의 거주지 문제에 관한 연구는 기능, 인구, 토지이용 등과 관련되어 도시 전체의 구조를 밝혀 준 Burgess의 이론적 모델에서 시작하였다. 1920년대의 식물생태학의 이론을 도시에 응용한 Burgess는 주거지의 공간구조는 그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여하에 따라 동심원적 배열을 갖고 도심에서 거리에 따라 외측으로 지위가 높은 층이 거주한다고 하였다. Burgess의 이러한 동심원 이론은 비판, 수정을 거쳐 거주지 공간분화에 관한 훌륭한 이론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주거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대체로 70년대부터인데 이것은 농업지리학 분야가 60년초부터 연구물이 발표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다(강대현, 정승일, 1985 : 18).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도시주거의 공간적 변천과정을 연구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원학회(1978)는 이조왕조시대의 서울시에 대한 거주형태를 복원하여 구한말의 도시주거공간형태의 일부를 구성하는 官廳이 어떻게 거주하였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당시 서울의 주거공간형태는 보행이동시대였으므로 職住近接의 거주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대체로 성벽 내에 한정되었다. 여기서 관리들은 궁궐과 관아에 접근거주하였으며 성내의 중심지구는 엘리트 계층의 거주지로 되었고, 주변으로 갈수록 하층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구명하였다.

이혜은(1984)은 일제시대의 서울(경성)을 역사지리학적 입장에서 시대적 배경과 주거 지역분화를 파악하였는데 당시의 주거지역은 도시의 구시가지 중심부의 전통적 주거지역에 한국인이 거주하고 신흥주거지역에는 일인이 거주하여 주택지역 분화가 현저하였다고 하였다.

이기석(1980)은 1970—197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거주지 분화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4개로 분류된 거주지 패턴 중 대체로 안정되고 상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 도심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차위의 거주지가 그 주위에 위치하고 있어 두 그룹은 공간적으로 동심적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중하위의 거주자가 상기중심부의 주변지역을 집하고 있으며 주민의 연령구조와 산업구조에 따라 그 거주지가 분화되고 있고, 공간적으로 이 주변부에 있는 두 유형의 거주지는 도시를 향하여 sector의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의 거주지는 중심부의 동심적 형태와 주변부의 선형적 형태가 혼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지리학이란 학문자체는 종합적 내용을 가진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주거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최근의 행태적 경향을 제외하면 주거 입지의 교환모델과 같이 주거입지 행태를 단순한 교통비

〈표 3〉 지리학 분야의 주거입지에 대한 연구동향

시 기	연구 경향	주요 연구
1960년대	- 신고전경제학적 접근방식 : 서민주택 해결방안 제시 주택의 수요와 공급측면의 연구	- 평면구조상에서 본 한국의 가옥분포 (이영택)
1970년대	- 계량적인 방법으로 생태학적, 행태학적 접근 시도 - 주택분포의 특색을 지도화 - 역사지리학적인 접근	- 중부지방의 민가형태 연구(이찬) - 한국의 민가 연구 - 구한말 서울의 주거공간형태(원학회)
1980년대	- 접근방법 및 연구내용의 다양화 - 주로 서울을 사례로 한 생태학적 접근으로 거주지역의 형성과정, 분화과정, 군집분석에 의한 주거지역구분, 일제시대의 주거지역분리등의 연구	- 경성부의 민족별 거주지 분리(이혜은) - 서울시 거주지 분화와 패턴(이기석)

와 주택가격간의 교환적 관계로 설명하거나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거주지역의 분화를 대규모 통계자료의 요인생태학적 분석을 통해 거주지의 거시적, 공간적 분포와 평면적 변화를 보여 주었을 뿐 거주지와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5. 건축학 분야

건축학에서의 주거사 연구는 고고학, 문화인류학, 지리학, 가정학, 민속학 등의 주거관련 분야의 학문에 비하여 그 연구의 범위가 넓고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학에서의 주거관련 특히 주거사에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 분류해 볼 필요가 있는 바 그 연구 방법에는 현존하는 유구나 유적지 유물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주거현황이나 주거배치계획 등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와, 문헌에 나타난 주거관련 항목 즉 일상생활 이야기, 주거에 관련된 문구를 발췌하거나 법령 등에 나타난 가사규제, 造家에 대한 기록 등을 해석 고찰함으로써 과거 주거생활에 대한 이해 및 흐름을 파악하려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은 주거계층에 따라 주거형태를 분리한 조선시대의 민가와 양반주택(한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주거사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의 주거형태를 분석한 단편적인 共時的 연구였다. 通時的 안목으로 주거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1960년대 이후에 몇몇 건축역사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지금까지의 공시적 연구성과들을 분석 종합하고 재검토함으로써 역사적 위치를 설정하고 성격을 규명하여 우리나라 주거사의 흐름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된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주거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사이에 일어난 주거형태의 변화 및 평면계획, 건축방법, 사용한 재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거변천과정에서 소멸되지 않고 이

어지는 지속성있는 주거의 특징을 찾아내어 주거흐름의 맥을 찾으려는 시도가 근대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주거지 선정, 주택의 향배치, 주거계획 등 오늘날까지도 주거생활 공간구성에 배경적변인 역할을 하고있는 풍수도참사상에 대한 연구도 주거사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1. 주거형태

원시시대에는 제한된 기술과 자급자족 경제체제로 인하여 계층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으나 고대 국가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계층의 분화와 함께 주거의 계층화, 다양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주거사를 연구하는데 그 사회의 보편적인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민가와 상류층의 주거형태인 한옥으로 주거형태가 나뉘어 질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물론 비교분석은 주거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체계 성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실증적 조사가 급증하고 주택의 구조적인 특징을 밝히려는 노력은 사회분위기가 역사적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고조되었던 1970년부터였다. 이들 연구들을 주거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보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조사를 통하여 잔존하는 유적지, 유구 등에 대한 구조형태적 특징을 발견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등의 연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거형태가 주거사 연구의 주요한 연구대상임을 재삼 부각시켰다. 그러나 건축학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과거의 주거형태가 지니고 있는 건축적 요소들을 연구자 자신의 시각으로 단편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으로써 주거생활 공간을 그 시대의 사회적 관심이나 규범에 의해 나타나는 문화적 산물로 인식하고 사회적 체계 내에서 표출된 하나의 형태로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시도된 부분적인 공시적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주거공간에 대한 세부적 사항들이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지를 통시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들이 부족하다. 시대변천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주거공간의 장식적인 의장에 대한 연구 및 그 배경, 주거내 각 공간에 대하여 기대되었던 주거기능의 변화 및 주거생활 규범 및 관습 등에 대한 변천의 역사를 깊이있게 분석 고찰한 연구가 나온다면 주거사 연구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셋째, 잔존해 있는 유적 및 유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당시의 주거형태가 연구의 자료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즉 현지관찰하는 당시의 주거형태가 건립 당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건립 이후에 행해졌을지도 모르는 수리, 보수, 증축등 변화과정의 추측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해 있는 거주경험자와의 면담 등으로 건립 당시의 상황을 추론해내고 있으나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확실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문적 뒷받침과 신뢰성있는 고증을 기초로 하여 그 당시의 주거형태를 복원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주거관련 인접학문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분야보다도 건축학 분야에서 책임있게 맡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도 시기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고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의 인식의 틀에 맞추어 과거의 주거형태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체계를 통하여 주거형태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생활 전반을 밝혀내는 것이 주거사를 연구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5-2. 고문헌의 해석 및 고찰

주거사의 중요자료가 되는 현존건물은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므로 건축물의 연구만으로 주거역사의 맥락을 가늠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고려시대는 석기시대나 고대 삼국시대에 비해서 잔존하는 주거지나 건물을 구할 수 없어 문헌자료를 통해서 추측할 뿐이다.

따라서 주거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고문헌에 나타난 주거관련 항목이나 가사제한 법령, 造家에 관한 기록을 해석·고찰하는 것은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과거의 주거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명확한 근거를 찾는 접근방법이다(박연곤, 1987). 그 이유는 물리적 형태만을 연구하여 주거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건립시기나 사회배경 등에서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고 생활공간이라는 주택의 특성상 보수, 수리 및 증축 등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건물을 그대로 적용 연구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선사시대와 고대주거 연구에 있어서 주거지 발굴을 통해 평면적 형태의 재현까지는 가능할 지 모르나 입체적인 공간을 복원시킬 근거는 마련하기 어려우며, 고분의 벽화나 출토된 유물들이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와 병행하여 기록으로 남아 있는 주거관련 항목을 정통성있게 해석하여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주거형태를 파악하고 재현시키는 것은 우리의 주거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문헌의 기록을 통해 주거역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고문헌이 중국인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역사적 왜곡이 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기록했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주거에 관련된 사항을 고문헌에서 발췌하여 해석·고찰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우리나라 학자가 아닌 일본인이었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의 사회적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학자적인 태도로 고문헌 해석에 임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후의 주거사 관련연구에서 이들의 해석을 대부분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거사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인 문헌에 대한 해석 및 고찰에 대해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각 학자마다 자기의 관심시기나 연구대상에 따라 단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석 고찰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앞선 연구자(특히 일본인학자)가 해석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수용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중국의 문헌에서 발췌한 내용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헌, 가사규제에 관한 법령, 건축방법에 관한 기록등을 총망라한 주거관련 기록을 모두 수집하고, 고문헌 해석에 권위있는 건축역사가, 고고학자, 민속학자, 문화인류학자, 가정학자 등 주거사에 관심있는 학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문헌해석 및 고찰에 있어서의 正論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주거역사의 맥을 근거있게 밝힐 수 있는 기본틀이 될 것이다.

5-3. 전통주거에 영향을 미친 사상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전통주거에는 우리 민족의 사상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식된 사실이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통주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뿐 만 아니라 주거사의 체계정립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한 부분이다.

고려건국에 풍수지리와 도참사상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사 권28 丙申條에는 多山은 陽이므로 한반도와 같이 산악지가 많은 다산지형에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파괴하므로 平屋을 지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경주 승복사의 비문으로 보아 신라 원성왕 때 풍수제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묘자리에 관한 陰宅論과 아울러 집터를 잡는데 관한 陽宅論이 주거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에는 집을 짓고자 하면 造成擇日을 하는데 宅主와 주부의 운에 따라 상량일, 토신제, 기공일을 잡고, 五要라 하여 대문, 부엌, 창고, 상하수도, 변소의 방위를 잡았다. 18세기에 들어서서는 마을의 팽창과 함께 주거수요가 증가하면서 양택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산림경

제, 임원16지, 택리지 등이 집터의 선정시 지침으로 이용되면서 주거 배치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양택서가 저술되었다.

우리 민족의 전통주거사상에 기초한 주거계획방법은 체계화되기 시작했던 1930년을 전후하여, 밀려 들어오는 서구 문물에 휩쓸리기 시작하였고 이는 주거생활양식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일으켜 전통주거에 대한 무관심과 아울러 지금까지의 전통주거사상이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사고로 간주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통주거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통주거공간 구성법에 원리적 이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속에서 과학성과 철학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전통주거에 관심있는 학자들은 과거의 주거공간을 분석함으로써 공간조직의 단계, 주거의 규모, 내·외부 공간과의 관계, 공간의 분화등에서, 주거공간이라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상호간에 음양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거지 선정 및 향배치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에 있어서도 풍수도참사상에 깊게 영향받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주거에 영향을 미친 전통주거사상에 대한 연구가 주거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부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구체적 자료의 수집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통주거에 영향을 준 사상들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그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주거변천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보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전통주거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나 이것이 일시적 풍조에 의한 것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로서의 한 분야를 차지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주거공간의 건축원리에 대한 체계확립과 아울러 이론적 바탕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연구가 될 뿐 아니라 주거역사의 올바른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4〉 건축학 분야의 주거사 연구동향

시 기	연구 경 향	주 요 연 구
1960년대	- 김정기, 주남철, 윤장섭 등의 사료 정리를 중심으로 한 통사적 주거사 연구	- 한국주택건축(주남철) - 한국주거사(김정기)
1970년대	- 전통건축에 대한 실측조사: 구조형태적 특징과 유형 분류 - 통사적 자료의 정리	- 한국건축사(윤장섭)
1980년대	- 전통건축의 형태 뿐 아니라 거주인의 사용 형태를 함께 분석 - 전통건축에 영향을 미친 풍수지리에 관한 연구 - 민족주체사상에 입각한 주거사연구	- 한국의 민가(박언곤) - 민족건축론(김홍식)

6. 가정학 분야

가정학은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모색하는 학문분야로서 그 학문적 영역 속에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및 가정 관리, 아동 및 가족관계 등 다양한 하위분야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학의 영역의 하나로서 주거학(Housing 또는 Science of Dwelling)은 주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이와 관계가 깊은 환경과 건축물 및 시설을 종합적, 계통적, 역사적으로 연구하여 주거문화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인간생활을 보다 낮게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생활과학(이인희, 1980)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가정학에는 가족을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변화에 적응, 유지, 성장하는 Open System으로 간주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도입되었고, 1983년에 한국가정관리학회지의 발간으로부터 주거학분야 연구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중반부터 주거학 분야에 있어서 다수의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고(이길표, 주영애, 1986) 주거학 전공의 가정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가 발족되어 1990년 6월에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가 발표되면서 주거에 관한 가정학적 접근방법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의 주거에 관한 연구는 내용에 따라 전통주거, 주거의식, 주거공간, 수납공간, 주생활관리, 실내장식, 주거환경, 주거문제 및 주거선택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주거사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통주거이다. 한국전통주택 평면구성과 현대주택 평면구성에 관한 비교연구(김예원, 1978)가 있고, 조선시대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주거생활을 연구한 홍형욱(1975; 1985; 1986)의 연구가 있다.

전통주거현상을 Morris & Winter(1978)의 모형을 일부 수정한 개념모형으로 고찰한 홍형욱(1986)의 연구는 개별가족의 주거행동이 특정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이것을 주거문화규범이라 함)에 따라 주거결함(housing deficit)이 생기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개별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조정 및 적응행동을 하게 된다는 미시사회학적 접근방식(microsociological approach)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1945년까지의 기존 문헌, 유구,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특성, 여러가지 제약의 주거조건과의 관계, 그리고 행동성향이 주거조정 및 적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주거사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행동 연구에 있어서의 미시사회학적 접근방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년동안 주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노력은 사회적 상황추이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접근방식은 도시에 슬럼이 존재하고, 그런 상황은 나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식의 직관적 결론을 도출케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이론적이지 못하다. 사회학에서 각 가족의 목표지향적 행동을 설명하는데는 경제학자들이 소비자 선택을 미시경제학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시사회학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의 주거선택행동의 연구에 대한 미시사회학적 접근을 주거조절접근이라 한다(Morris & Winter, 1985).

다년간의 주거연구에 기초해서 주거조절모델은 주거조절과정 구조를 정확히 묘사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 모델이 사회변화에 따라 생길 수 있

는 불확실한 규범적 주거결함의 분석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홍형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시사회학적 접근방식이 通時的 주거사 연구나 共時的 주거사 연구 모두에서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생활과 주거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며 생활활동은 주생활을 이룸으로써 비롯된다는 점에서 전통가정생활양식과 전통주거를 접맥시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연구야말로 가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이길표, 주영애, 1986).

〈표 5〉 가정학 분야의 주거사 연구동향

시 기	연구 경 향	주 요 연 구
1970년대	- 가족을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로 보는 체계적 접근방법 - 주로 백분율을 이용한 단순통계에 의한 조사연구	
1980년대	-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의 도입 - 다양한 통계기법을 이용한 조사연구	-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홍형욱)

Ⅲ. 요약 및 결론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주거사 연구는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여러시대에 걸쳐서 고고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지리학, 건축학, 가정학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들 연구성과 역시 여러 학술분야와 사학, 사회학 등의 학회지 또는 관계 전문잡지 등 다양한 장에서 발표되고 있다(김정기, 1989).

각 학문분야의 연구성과들은 얼마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각 학문 성격을 반영하는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주거사 연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학문 분야의 연구성과를 개괄해 보면 형태에 대한 규칙성의 분석이나 단편적인 해석에 그침으로써 전통 민가를 전통사회의 문화적 산물로서 체계적이고 의미론적

으로 파악하는 데는 각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강영환, 1989 : 34).

고고학 분야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 발굴을 통하여 주택의 입체적 형태와 주거공간 내에서의 생활행태에 관한 추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설이 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김광언을 중심으로 한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는 주거는 삶의 실체라는 관점에서 일상적인 생활풍습과 주거공간과의 관계, 주거공간내에서의 생활 그 자체를 현지조사를 통해 관찰하고 연구하여 주거사 연구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놓았으나 이 접근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주거생활과 그 시대의 사회상황과의 관련성까지를 접목시켜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 민속학 분야에서는 전통민가에 있어서의 건축의례라든가 주거와 관련된 신앙, 풍속, 생활상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

구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 연구가 빈약했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이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라는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을 역사적으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장보웅이 한국 민가의 평면, 지붕형태 등을 지표로 민가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의 한반도내에서의 공간적 분포를 밝혔는데, 이는 민가유형 분류에 사용한 지표가 단순하다는 점은 있으나 지리학적 접근방법의 한 유형을 보여준 것이었다.

건축학 분야에서의 주거사 연구는 관련 분야의 다른 학문에 비하여 그 연구범위가 넓고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연구방법은 현존 유구나 유적지 유물을 통하여 과거의 주거형태나 주거배치계획 등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는 접근법과 문헌을 통하여 과거 주거생활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하는 접근방법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주거지 선정, 주택의 향, 배치, 주거계획 등 전통주거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풍수지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졌다.

가정학 분야에서는 조선시대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전통주거생활을 미시사회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홍형욱의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주거사를 거주인의 거주행태와 사회의 문화규범과의 관련성 속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거사 관련 연구가 지나치게 주거형태에 대한 규칙성만을 강조하고 주거를 거주인의 생활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시사회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주거사의 연구가 여러가지의 관점에서 앞으로 더욱 많이 연구되어짐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주거사 연구가 어떤 한가지 접근방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 접근방법이 혼합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바, 일차적으로는 각 학문 분야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주거사 연구를 철저히 진행시킨 후 그 다음 단계로서 그것들을 종

합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주거사 정립방법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정기, 한국 주택사 연구의 전망,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147호), 1989. 3 : 3-6.
2. 유승용, 민가 연구의 상황,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147호), 1989. 3 : 24-30.
3. 최몽룡, 고고학상으로 살펴 본 주거변천, 광장 182, 1988. 10 : 192-207.
4. 김기웅, 한국의 벽화고분, 한국사 선서, 동화출판사, 1982.
5. 김원룡, 한국 벽화고분, 한국문화예술대계 III, 일지사, 1984.
6. 권이구, 한국문화인류학 30년 〈한상복〉논평, 한국문화인류학 20, 1988 : 57-84.
7. 한상복, 한국문화인류학 30년, 한국문화인류학 20, 1988 : 57-84.
8. 주남철, 인류학자가 본 한국의 주거민속, 「한국의 주거민속지」 김광언 저 〈서평〉 신동아 344, 1988. 5 : 673-675.
9.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민속학개설, 보성문화사, 1979.
10. 김택규, 민속학,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2.
11. 이두현, 한국민속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 16, 1984 : 3-8.
12. 박계홍, 한국민속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민속학 21, 1988. 9 : 45-67.
13. 김동욱·최인학·최길성·최래욱, 한국민속학, 새문사, 1988.
14. 강영환, 한국 전통민가 연구의 동향과 과제,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147호), 1989. 3 : 31-35.
15. 배도식, 한국의 이사풍속, 한국민속학회 18, 1985. 3 : 33-82.
16. 이영택, 평면구조상에서 본 한국의 가옥분포,

- 지리 1-1, 한국지리교육회, 1965.
17. 장보용,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출판사, 1981.
 18. Kirby, D.A., "Housing", edited by Michel, P., Progress in Urban Geography, Croom Helm London, 1983.
 19. 장대현·장승일, 도시 주거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 지리학연구 10, 한국지리교육학회, 1985 : 17-36.
 20. 원학회, 구한말 서울의 주거공간형태, 지리학 총 6, 1978 : 25-32.
 21. 이해은, 경성부의 민족별 거주지 분리에 관한 연구 : 1935년 중심으로, 지리학 제29호, 1984 : 20-36.
 22. 이기석, 대도시 거주지 분화와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의 도시와 촌락 연구, 보진재출판사, 1980.
 23. 박언곤, 고문헌의 해석 고찰에 따른 건축사학 전개의 재고 소론(주거에 관한 문헌 중심), 문화재 20, 1987. 12 : 325-333.
 24. 이인회 외 4인, 가정학원론, 수학사, 1980.
 25. 이길표·주영애, 최근 10년간의 주거학 연구 동향 : 1976-1986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성신여대생활문화연구 1, 1987. 3 : 81-100.
 26. 김예원, 한국의 재래한식주택과 현대주택에 있어서의 평면구성에 관한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27. Morris, E.A. & M.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John Wiley & Sons. Inc., 1978.
 28. 홍형욱,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29. Morris, E.A. & Winter, A Note on the Micro-sociology of Housing, Journal Paper of the Iowa Agriculture and Home Economics Experiment Station, Ames, Iowa, 1985.
- ※ 이상의 참고문헌 외에 연구에 사용된 학문 분야 별 참고자료 목록은 지면관계상 생략.